2대째 성실히 양돈장을 경영하는

덕흥농장 이 해 상 사장

◀2세 양돈인 이해상 사장(35세)

지난 96년말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가 1만불을 넘어섰으며, OECD에 가입한 것에 한껏 심취되어 채 1년도 되지않아 우리에게 IMF라는 시련이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리를 뒤로한채 우리는 그렇게 한치 앞도 못보는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한번 예년의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현재 경제상황이 예전에 비해 약간 호조를 보이는 등 증세가 나타나자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IMF였냐는 등 흥청망청이다. 바로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IMF 시대에 접어들었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 또다시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IMF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에는 실업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IMF 시대가 다 지나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IMF 시대에 접어든 이후 우리 양돈산업에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주어졌다. 특히 부채가 많은 양돈농가들의 경영압박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했으며, 때로는 도산을 맞보는 양돈농가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 양돈산업도 새로운 세대가 바통을 이어 받아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농장경영을 통해 내실 있고 튼튼한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세 양돈인 이해상 사장

덕흥농장 이해상 사장(35세)은 지난 60년대부터 부친 이갑용 씨가 경영해 오던 농장을 물려받아 92년부터 농장을 맡아서 경영해 오고 있다. 현재 부친 이갑용 씨는 농장경영에서 거의 손을 뗀 상태다.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돼지를 보며 자란

이 사장은 스스럼 없이 돼지와 친해질 수 있었으며, 모돈 100두 규모의 농장이던 것을 물려 받은지 7년이 지난 99년 1월 현재 모돈 250두 규모(후보돈 포함)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농장경영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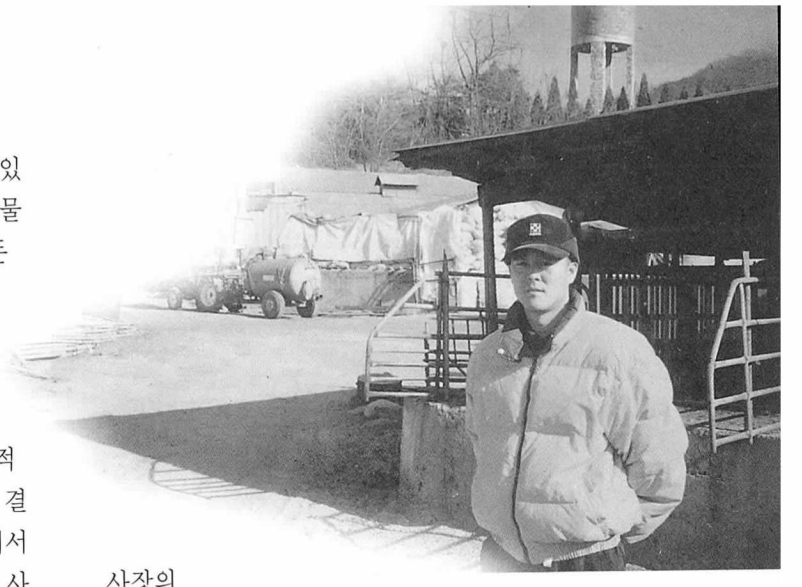
이 사장은 농장을 처음 시작할 92년 당시 무조건 농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우선은 다른 큰 농장에 들어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농장을 물려받기로 결심하고 경기도 포천소재 중원종축 농장에서 7개월간 무보수로 농장실습을 하였다. 이 사장은 지금도 그 때 경험했던 농장실습이 가장 큰 자신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때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특히 7개월간의 실습을 통해서 얻은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을 함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내 농장이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어느 회사의 사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돈 갱신을 잘 해 주었느냐라는 것이다. 그 농장에서 후보돈을 얼마나 잘 보충해 주고 산차구성을 잘 해주느냐가 농장경영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에 위치한 덕흥농장은 농장부지 5,000평에 분만사, 비육사 등 건평 1,000평 규모로 윈치커텐을 이용한 환기방식의 개방형 돈사로 되어 있으며, 분뇨처리는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최종 발효건조를 하고 있다. 또한 돈사내에는 닥트를 설치하여 돈사안이 쾌적하게 유지되게끔 하였다.

한편 사양관리는 일주일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간관리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100% 거세, 70%의 인공수정과 30%의 자연교배를, 그리고 분만은 관리자가 새끼를 받지 않는 자연분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사장의 논리는 돼지도 그 나름대로 자기 새끼에 대한 어미로써의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돼지를 알아서 낳고 잘 기른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다니면서 탯줄만 묶어 주고 나둔 뒤 모돈의 후산처리가 끝난 뒤에 단치작업과 꼬리자르기, 백신접종 등의 관리가 이어진다고 한다. 즉 분만은 돼지가 알아서 하고 자돈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후산처리가 끝난 뒤 자돈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돈의 초유섭취 만큼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신경을 잘 써주고 있었다. 실제로 분만사를 둘러보았는데 전체 자돈들이 고르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농장을 배경으로 선 덕흥농장 이해상 사장, 이 사장은 끝까지 양돈인으로 남고 싶어 한다.

덕흥농장은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퓨리나코리아의 사양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월별 출하내역, 모돈에 대한 산차관리, 종부사항 등 1달에 한 번씩 농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농장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퓨리나코리아 지역부장과 함께 4명의 농장 직원들이 1달에 한 번씩 경영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농장의 성적 개선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덕흥농장의 PSY는 평균 24두를 상회하고 있으며, 월 출하두수는 450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덕흥농장의 모돈 산차구성을 살펴보면 1산차가 45두, 2산차 36두, 3산차 79두, 4산차 40두 등 모돈 산차 비율이 3산차를 기준으로 앞뒤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산을 넘긴 모돈은 거의 도태시키는 등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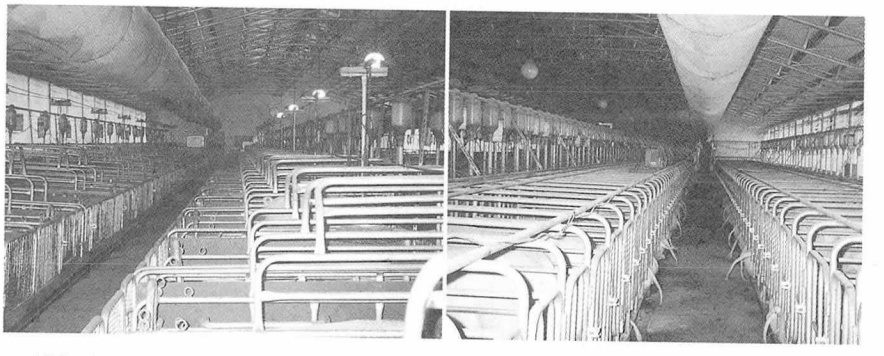
여기서 이해상 사장은 예전의 실패했던 경험을 말해 주었는데 처음 농장을 맡아서 경영할 때 이 사장 본인이 보기에는 모돈의 경우 6산 이후에도 새끼를 많이 낳고 잘 기르는 것을 보고 6산 이후의 모돈을 도태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용한 결과 나중에는 후보돈의 도입 적기를 놓쳐 노산돈으로 인해 농장 생산성적이 상당히 떨어진 후 산차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물론 지식으로는 산차구성을 올바로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짧은 경험만을 믿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보니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실패했던 쓴 경험이 지금은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보약으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 즉 농장을 경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지금의 덕흥농장이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농장기록과 여지껏 큰 질병 한 번 맞아보지 않았다는 농장위생 수준은 분만사와 자돈사 등을 잠깐 들어갔다 나온 필자의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몇 일을 두고 계속 날 정도로 질병예방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덕흥농장 직영 식육직매장 개장

덕흥농장은 요즈음 돼지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의 구매 지급률 논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 사장은 농장내 모든 돼지들에게 아로맥스, 생약초, 게르마늄, 가친키토산재 등의 약재를 수입하여 이들 원료를 갈아서 먹이고 있다. 물론 약재값은 비싸지만 덕흥농장은 게르마늄 포크라는 곳에 구매 지급률 71%를 받고 출하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농장 직매장에서 직접 도축하여 생산자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97년 서울시 상계동에 정부자금 5천만원과 일반대출 1억7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3천만원 등 총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평 17평의 덕흥농장 직영 식육직매장을 꾸며 덕흥농장에서 나오는 돼지를 직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주변 상권이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1일 8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직매장 경영은 이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친척들에게 전문 식육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모두 맡겨 경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덕흥농장의 분만사(좌측)와 임신사 내부 전경, 지난 97년 2억원의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이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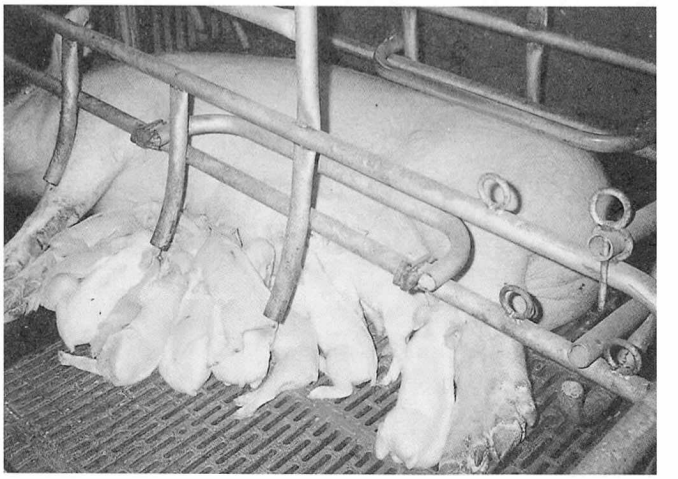
있었다. 즉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분야를 관여하고 싶은 것이 이 사장의 욕심이라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육직매장을 개장한 것은 이 사장이 앞으로 농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사장은 현재 자기 농장의 돼지고기를 "해상포크"로 상호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며, 4월경 본격적으로 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경영인 이해상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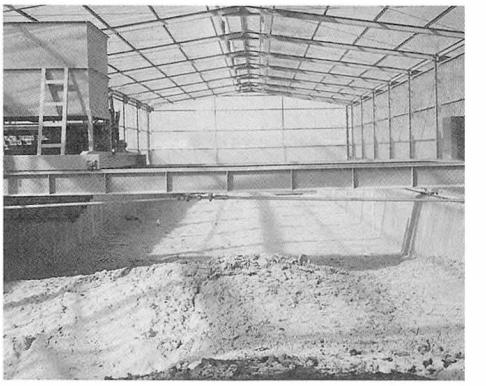
이 사장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장은 지난 92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처음 농장을 물려받았을 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주간관리시스템 적용, 농장성적 전산관리, 인공수정 도입 등 최신 양돈사양 기법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등 남보다 앞선 경영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난 95년에는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과정도 수료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이를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사장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때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식육직판장을 개장하게 된 계기도 이 때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자세로 양돈에 임할 터

농장 성적을 이야기 하려면 농장의 모돈 산차 구성 등의 기본적인 사양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장은 종부, 생산, 이유, 판매 등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적인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분만사의 모든 자돈들이 균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 설치하여 가동중인 톱밥발효건조장

이 사장은 지난 97년도에 정부의 정책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모돈사와 임신사를 새로 신축하였다. 그 후 IMF가 터져 지난 98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래도 철저한 사양관리 덕분에 일정하게 돼지를 출하할 수 있어서 농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돼지가 좋아 농장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식육전문매장을 개장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농장시설 규모를 확대하는 등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크지만 이 사장은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

이 사장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직시하는 철저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의 보통 양돈인이 아닌 최후까지 살아남는 성실한 양돈인이 될 것이라고 작지만 큰 소신을 밝힌다. 〈취재 : 이병석〉양돈